

백남준 개인전

Nam June Paik Solo Exhibition

W3



전시명 : 백남준 개인전 <W3>

Nam June Paik Solo Exhibition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3월 15일(일) 54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12점

담 당

우은수 (eunso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50121 - 20150315 백남준展]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새해 첫 전시로 1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백남준 개인전 W3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 열린 항저우 삼상현대미술관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展과 학교재상하이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展의 작품을 망라한 총 12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제목인 W3는 미래 미디어 환경을 예측한 작가의 이상적 아이디어가 실현된 그의 대표작이다. 총 64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W3>는 인터넷을 지칭하는 World Wide Web을 의미한다. 백남준은 이미 1974년 '전자 초고속도로(Electronic Superhighway)'란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현대사회의 웹문화와 대중매체를 예견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작품은 백남준이 꿈꾸던 미래의 미학세계를 대변한다. 그는 일상적이고 권위적인 사물이었던 텔레비전을 예술적인 소재로 탈바꿈하여 관객들의 미적 사유를 촉발했다. 그의 예술을 통해 관람자들은 인간 정신의 자유를 향한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고(故) 백남준은 최근 세계적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스미소니언미술관(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2014년 록펠러 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 (Asia Society of Rockefeller Collection)에서 10여 년 만에 개최된 뉴욕에서의 개인전에 이어 11월부터 영국 테이트모던(Tate Modern)에서 백남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시기, 학교재가 서울에서 백남준 개인전 W3을 여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전시는 국내 관람객에게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거장이자 전설이 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경험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더불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전시가 될 것이다.

백남준(1932-2006)은 플럭서스 운동의 핵심구성원이자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일본과 독일에서 음악, 철학, 미술사를 공부하고 독일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비디오,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혁신적인 작품으로 세계 현대미술사에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스미소니언미술관(Th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파리근대미술관(The Musée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등 세계 유명 미술 기관에 소장되어 있고, 최근 테이트모던에서 9점을 구매하였다.

상하이 현지반응

백남준은 생전에 상하이와 모스크바에서 개인전 열기를 희망하였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백남준 개인전은 그의 사후 3년이 되는 2009년 베이징 중앙미술학원미술관에서 처음이었으며, 사후 8년 만에 지난 가을(2014년 9월) 상하이 학교재상하이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현지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독립큐레이터 황두(黃篤)는 “백남준 선생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상하이에서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다.” 라고 했으며, 중국의 미술 전문 월간지 ‘예술당대’의 쉬커(徐可) 부주장은 “이제까지 상하이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주로 기획해왔다. 백남준과 같은 국제적 명성의 대가의 작품을 상업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상하이의 미술계와 컬렉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오프닝에 참석한 독일작가는 자신이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백남준 전시를 볼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으며 “누군가는 하게 될 전시지만, 상하이에서는 오 년에서 십 년 정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학교재상하이는 용감하다. 감동적인 전시이다. 만약 이 정도 규모의 전시가 독일 쾰른에서 열렸다면 오프닝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展은 상하이 모간산로 예술특구가 형성된 이래로 가장 수준 높은 전시였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많은 관객의 기록을 세웠으며 현지미술계로부터 “상하이에 미술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는 그 전시의 귀국보고전이다.

덧붙임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백남준의 작품을 제작, 유지보수 해 온 ‘백남준의 손’으로 불리우는 테크니션 이정성(아트마스터 대표)은 이번 전시의 설치를 마친 후 “백 선생님은 살아생전 상하이에서의 전시를 열망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말썽부리던 모니터 몇 대가 무사히 고쳐지고 시간 내에 설치가 제대로 마무리된 걸 보면 아마도 백 선생님이 와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그리움을 드러냈다.

2. 전시 구성

1. W3



W3, 1994, 64 monitors, Dimensions variable with specific installations

총 64대의 모니터로 구성된 <W3>는 인터넷을 지칭하는 World Wide Web을 의미한다. 각각의 모니터는 전체 재생 시간 20분가량의 영상을 일초 간격으로 옆 모니터에 전달한다. 이 반복은 현란한 빛을 뿜으며 역동적으로 x자 형상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이 되어 나타난다. 이는 현대사회의 역동적인 소통 문화를 암시한 것이다.

현시대의 웹문화와 대중매체를 예견한 이 작품은 계획에서 실현까지 20년이 걸렸다. 작가는 1974년, 록펠러 재단에 '전자 초고속도로(Electronic Superhighway)'라는 이름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작비용을 신청했지만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했다.

백남준은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항상 주장했다.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세계가 소통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이 표현된 대표작이다.

2. 1963년도 싱글채널비디오

백남준은 1963년, 독일 서부도시 부퍼탈의 파르나스갤러리에서 생애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전시를 열었다. 정보전달매체에 불과했던 텔레비전을 예술품으로 변모시킨 대담한 실험정신을 담은 전시회였다. 그는 TV 브라운관을 캔버스 삼아 전자파동으로 화면을 변동시켜 소리를 이미지로 바꾸거나 방송되는 이미지를 왜곡시켜 움직이는 회화를 선보였다. 비록 당시 저명한 비평가조차 텔레비전 수상기가 예술과 관련 있다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백남준은 이를 통해 비디오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5점의 싱글채널 모니터작품은 파르나스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이 열린 1963년 제작한 것이다. 비디오아트의 아주 초기작으로써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작품은 각각 1점의 A.P(Artist Proof)와 1점의 에디션만이 존재하며 전시작은 모두 A.P이다. 에디션은 현재 리옹현대미술관(프랑스, 리옹)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 작가의 감독 하에 1995년 비디오플레이어, CD플레이어 사용 등의 기술적인 부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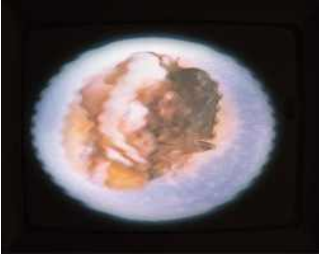
2-1. 두개의 TV 세트에 음파 입력 (수직/수평)



Sound Wave Input on Two TV Sets
(Vertical/Horizontal), 1963-1995, 94x51x51cm

각각의 TV 모니터는 서로 다른 DVD 플레이어에 연결되어 있다. DVD 플레이어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 전파를 수신한 TV는 전자파동의 강약에 따라 이미지를 움직인다. 관람자들은 소리 없는 음악을 감상하게 된다.

2-2. 수평 달걀 구르기 TV

Horizontal Egg Roll TV, 1963-1995,
45x47x50cm

이 작품은 모니터에서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의 성인 여성이 달걀 형상 안에 갇혀 허공을 굴러다니는 모습이 재생된다. 평소 동양의 윤희사상에 관심이 많던 백남준이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달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통해 화면을 조정할 수 있다. TV 밑에 있는 송신기로 강약을 조절하면 그 전파에 의해 달걀의 모습이 왜곡된다. 관람자가 예술의 주인이며 관람자와 예술은 하나라고 말한 백남준의 예술철학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2-3. 수직 구르기 TV



Vertical Roll TV, 1963-1995, 45x47x50cm

<수직 구르기 TV>는 작품 속에 담긴 스키 영상을 조작, 화면의 깊이와 시간(빠르기)을 변환하여 보여준다. <수평 달걀 구르기 TV>가 전파조작에 의해 이미지를 수평으로 왜곡시키는 작품이라면, <수직 구르기 TV>는 제목 그대로 이미지를 수직으로 왜곡시키는 작품이다. 영상 송신기의 강약 조절에 따라 흰 설원을 활강하는 스키어는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리기도하고 수직 하강을 하기도 한다. 화면의 깊이와 시간(빠르기)을 조작하는 이 작품은 백남준이 표현 하고자 했던 추상적인 시간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고 있다.

2-4. 흰 잔재에 대한 발판 스위치 실험

Foot Switch Experiment on White Rester,
1963-1995, 50x49.5x46.5cm

발판을 이용하여 모니터의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이 작품은 기억의 잔상효과를 시각적으로 쉽게 풀이한 것이다. 동시에, 정지되어 있거나 평면 상태로 저장되지 않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비튼다.

2-5. 오실로스코프 TV



Oscilloscope TV, 1964-1995, 21.3x58x45cm

오실로스코프는 교류 신호 전압의 시간적 변화를 브라운관에 비추는 진동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 또는 표시하는 장치다. 이 기계를 이용한 작품은 수직, 수평, 대각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를 변형 및 이동시킨다.

3. 비디오조각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과 삶에 영향을 끼친 여러 방향의 인물들을 로봇작품으로 제작, 오마주하였다. 그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인물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가깝게 지내던 요셉 보이스와 샬롯 무어먼, 자신의 뿌리인 정기스칸을 비롯하여 음악가 모차르트, 재즈뮤지션 스콧 조플린(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바우하우스 전시에 설치되어 있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소설가 톨스토이 등이 작품으로 남았다.

3-1. 샬롯



Charlotte, 1995, Mixed Media, 236x180x38cm

독일 플럭서스 운동의 핵심 멤버로써 전위적인 퍼포먼스를 주도하던 백남준은 1964년 현대미술의 메카였던 뉴욕으로 활동영역을 넓힌다. 그곳에서 그는 아방가르드 첼리스트 샬롯 무어먼을 만나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합한 예술활동을 펼친다. 백남준은 샬롯의 신체를 이용하여 음악과 비디오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으며, 청각과 시각 모두에 있어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Robot Opera>(1964), <Opera Sextronique>(1967), <TV Bra for Living Sculpture>(1969), <TV-Cello>(1971) 등이 있다.

백남준은 인간적인 면을 보다 확장해 사상적 의미까지 내포한 인간형상의 비디오조각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그녀의 죽음 후 3년 뒤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정 가운데에는 인간 얼굴의 형상인 듯한 첼로가 세워져 있고, 11개의 모니터 화면에서는 샬롯의 퍼포먼스 장면이 재생된다. 백남준은 1991년 그녀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눈부셨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암 투병의 고통 때문에 모르핀을 투여하고 퍼포먼스를 행하였는데 평소 동양의 샤머니즘에 관심이 많던 백남준은 그 장면을 보고 마치 신들린 무당의 굿판 같다고 회고했다. 흰색 계열의 화려한 전선들은 무당이 제의식때 입는 의상을 암시한 듯하다.

3-2. 톨스토이



Tolstoy, 1995, Mixed Media, 131x86x40cm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톨스토이는 말년 동양철학에 심취하였다. 그는 장자와 노자의 도가에 특히 관심이 있었으며, 그 사상을 배우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기까지 했다.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의 거장으로 인정을 받고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자신을 철차탁마하였다.

백남준은 선불교나 도교와 같은 동양철학을 흡수함으로써 서구의 매너리즘과 오만과 대항하고 넘어설 수 있었다. 서구사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동양사상까지 연구하며 노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 톨스토이를 바라보는 백남준의 마음이 이에 닿아 있지 않았을까.

3-3. 테크노보이 II



Techno Boy II, 2000,
Antique Radios, Antique TVs, Antique Cameras,
LCD Monitors, 117x63x46cm

제2차 세계대전 후 네오다다의 작가들은 오브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버려진 라디오, 트랜지스터, 카메라와 모니터를 융합해 새롭게 탄생한 테크노보이는 백남준의 해학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또한, 기술과 미디어가 인간을 지배할거란 비관적인 세계관을 무시하고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 공동체를 보여준다. 기계를 의인화시켜 따뜻한 감성으로 창조된 인간로봇은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기술과 미디어가 유토피아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3-4.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공



Nostalgia is an Extended Feedback, 1991,
Vintage TV Cabinet, Neon, Chassis, Tubes,
Laser Printed Canvas, Rug, Print, Lamp,
Antique Photo Album, Three 4.5" KTV
Monitors, 1 Sony Watchman, 1 Sony Laser
Disk Player, 1 Paik Laser Disk,
165x78.74x34cm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공'은 백남준이 1992년도에 쓴 글의 제목이다. 작가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품게 되는 노스탤지어(향수(乡愁))는 단순히 기억을 환기하는 행위와 느낌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피드백 못지않은, 혹은 그 피드백보다 훨씬 큰 (제공근의)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머릿글에서 "1950년 이전, 예술가들은 추상적인 공간을 발견했다. 1960년 이후, 비디오 예술가들은 추상적인 시간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비디오는 일직선으로 나가는 시간의 화살을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고, 방향을 뒤바꾸고 뒤집을 수 있으며, 그 흐름을 휘게 하거나 비틀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글과 맥을 같이하는 동명의 작품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공>(1991)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일 수도 있는 작은 서재 혹은 다락방을 연상시킨다. 은은한 조명과 오래된 카펫위에 위치한 카메라 로봇(시간 기록 장치), 액자(시간 기록 현상물 보관 장치)와 작가의 기록영상(시간 변환 장치)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함과 동시에 그 당시의 희로애락을 함께 상기하며 자유롭게 뒤섞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5. 램프



Lamp, 1994, Mixed Media, 50x25x33cm

<램프>는 비디오 아트를 통하여 기술이 환하게 미래를 밝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백남준은 원양어선에서 석유를 사용하여 불을 밝히던 램프 안에 조그마한 텔레비전을 넣었다. 과학 기술의 혜택으로 인간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은 기술과 미디어가 인간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듯하다. 또한, 비디오 아트가 앞으로 예술세계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3-6.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Sonatine for a Gold Fish, 1996, Mixed Media, 56x65x49cm

불교의 선 사상이 담겨 있는 명상적 작품인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는 1960년대 텔레비전 수상기의 내부 회로를 모두 비워내고 이것을 금붕어의 사적 공간으로 변화시킨 작품이다. 금붕어는 브라운관이 없는 TV 상자 안에서 브라운관을 대신하는 메시지 자체이자 메시지 전달자로 존재한다. 텔레비전의 전자 빛 대신 유유자적하는 금붕어를 통해 관람객은 이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3. 전시 서문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윤재갑 (하우 아트 미술관 관장)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Hommage a John Cage)’에서 피아노를 부수는 백남준의 퍼포먼스는 본격적인 작가로서 백남준의 첫 무대였을 뿐 만 아니라, 서구 예술계의 매너리즘과 오만을 질타하는 중요한 퍼포먼스였다. 백남준이 활발하게 참여한 플럭서스(Fluxus)의 전성기는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걸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한가운데 1968혁명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백남준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의미한다면 1968 혁명은 ‘전자화(electrofication)’을 의미한다고 단언한다. 백남준에게 있어서 전기 시대가 결국은 빅브라더의 지배로 귀결된다면 전자시대는 그에 대항하는 다종의 비결정적이고 자율적인 저항과 희망을 상징한다. 1984년에 전 세계에 위성 중계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은 빅브라더가 미디어를 통해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암울한 예견이 ‘절반만 맞았고’ 기술의 진보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것이라는 백남준의 절박한 믿음을 잘 보여 준다.

정치-사회-문화적 연대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조직을 꿈꾼 플럭서스의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백남준이 이 ‘전자시대’의 특징인 변동성과 비결정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의 샤머니즘과 선불교(Zen Buddhism)의 영향이 매우 컸다. 백남준에게 있어 선(Zen)은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체험하는 것, 현재를 유토피아로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反)아방가르드적이며 반경제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하지만 이 반아방가르드적인 정신이 백남준에서는 아방가르드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이 동력을 토대로 백남준은 서구의 매너리즘과 오만과 대항하고 넘어설 수 있었다. 동양 사상을 통해 아방가르드를 느낌과 결합시킬 수 있었고, 기술주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기술의 인간화를 추구하고, ‘기술에 대항하는 기술로서의 예술’을 자신의 미학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 나온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W3’이다. W3은 World Wide Web을 의미하는데 1974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에 제작 기금을 신청하고 무려 20년 후인 1994년에야 제작된 작품이다. 1974년에 이미 인터넷을 예상하고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Electronic Super Highway)’라고 불렀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총 64대의 모니터로 구성된 이 작품은 백남준의 천재성과 그가 꿈꾼 미학 세계를 대변하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백남준은 동양 사상을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1894-1964)의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The more probable the message)’,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의 ‘차가운 매체(Cool media)’와 결합시킨다.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나 차가운 매체는 정보 전달량이 낮아 수신자의 참여도와 관람자에 의해 오히려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얘기한 비디오 예술의 ‘비결정론적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백남준이 꿈꾼 미래의 미학은 창조자, 관람객, 비평가가 일체화되어 수많은 존재자들이 발산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재조직하면서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자유를 향한 사랑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1932년 한국에서 태어나서, 홍콩에서 고등학교(Royden School)를 마치고, 일본의 동경대학교에서 미술과 음악사를 전공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미술을, 뮌헨 대학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뉴욕에서 생활하며 작업한 백남준은 아시아-유럽-미국을 잇는 최초의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동료들은 그와의 협업을 통해 전후 유럽의 암울한 현재를 극복할 대안을 보았고, 자아도취에 빠진 동양의 옥시덴탈리스트(Occidentalists)들에겐 항구적인 자기반성의 척도가 되어왔다. 그것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거의 모든 비평가들이 백남준을 1960년대 이후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작가라는데 동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의 천박한 지식과 재주 없는 글이 부끄럽지만, 나 역시 그를 무한히 존경하는 많은 이들 중 하나일 뿐이다. 살아생전 백남준은 상하이 전시를 열망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 했다. 2006년 뉴욕에서 사망 후 그의 육신은 서울-뮌헨-뉴욕 세 곳에 나뉘어 안장되었다.

4. 작가 약력

백남준

- 1932 서울 출생
1956 도쿄대학교 음악예술사 학위 취득
1978-1995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 비디오학과 교수로 재직
2006 마이애미, 미국에서 소천

개인전

- 2015 W3, 학교재, 서울
- 2014 백남준: 로봇이 되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학교재상하이, 상하이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의 백남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13 백남준: 과정 속의 미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백남준, 토마스 솔로몬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 2012 백남준 스펙트럼, 소마미술관, 서울
백남준: 미술적인 과정,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 2011 백남준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테이트 리버풀, 리버풀, 영국
- 2010 백남준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 2007 백남준과 한국, 환상적인 과도현실, 텔레포니카 재단, 마드리드
- 2006 잘가요 백남준,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백남준 회고전,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백남준전, 오렌지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종이위의 백남준, 보훔 미술관, 보훔, 독일
- 2005 핸들에서 우연한 일치, 레커만 갤러리, 쾰른, 독일
올랭프 드 구주,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 2004 2004년 수상, NRW 미술 재단, 포닉스 홀, 도르트문트, 독일
2004 글로벌 그루브, 독일 구겐하임 재단 미술관, 베를린
백남준전,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시드니, 호주
- 2002 플럭서스와 비디오 조각, 빌헬름 램브루크 미술관, 뒤스부르크, 독일
전자 저글러 II, 백남준과 비디오아트의 탄생, 카보우르 궁전, 토리노, 이탈리아
- 2000 백남준의 세계,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호암미술관, 용인
그림들, 현대 미술관, 바젤, 스위스
- 1999 플럭서스/비디오, 브레멘 쿤스트할레, 브레멘, 독일
- 1997 백남준 전, 바이런 코헨/ 레니 버코위츠 현대 미술관, 캔자스시티, 미국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벨슨-아킨스 미술관, 캔자스시티, 미국; 호놀룰루 미술관, 호
놀룰루, 미국
- 1996 백남준 다큐멘테이션, 하카타, 후쿠오카, 일본
비디오 조각상, 전자 전류,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코펜하겐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새너제이 미술관, 새너제이, 미국; 샌디에이고 현대미술관, 샌디에이고, 미
국

- 1995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 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컬럼버스 미술관, 컬럼버스, 미국; 펜실베이니아 예술 아카데미, 펜실베이니아, 미국
바로크 레이저, 마리에 힘멜파르트 성당, 마우리츠 교회당, 독일
비디오 조각상, 설치 미술, 아르스 노바 미술관, 튀르쿠, 핀란드
하이테크 알레르기, 볼프스부르크 시립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 1994 샤먼의 비디오, 팔라초 레알레 아렝가리오, 밀라노, 이탈리아
백남준전,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백남준과의 여행, 포트로더데일 미술관, 포트로더데일, 미국
백남준 근작 전, 알버트 브나무-필리프 그라비에, 파리
- 1993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리허설 - 독일 파빌리온,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TV 침대, 물고기 TV, 자라는 달걀, 보이스 박스, 다윈, 1991년 비디오 상들리에, 넵툰, 화이트 스페
이스, 함부르크, 독일
유목민 예술가 - 독일 파빌리온, 제45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 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
스, 이탈리아
백남준 최근작,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 1992 근작 전, 한스 메이어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백남준 비디오매·비디오땅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사진들,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백남준의 두번째 노베첸토: 21을 향해가는 전자 예술, 필름과 미디어, 팔라조 텔레 에스포시지오니,
로마
- 1991 비디오 시간 - 비디오 공간, 쿤스트할레 바젤, 바젤, 스위스
백남준 전, 베른트&크리프스 갤러리, 쾰른, 독일
- 1990 별, 한스 메이어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산 도미닉의 회랑,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백남준, TV, 마리카 마라콜다 갤러리, 제네바, 스위스
- 1989 최근 회화와 조각, 홀리 솔로몬 갤러리, 뉴욕
백남준전, 빌바오 미술관, 빌바오, 스페인
페리 일렉트로닉, 파리근대미술관, 파리
로봇가족, 후쿠오카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 1988 메트로봇, 현대 미술관, 신시네티, 미국
비디오 워크, 1963-88,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 1987 바이 바이 키플링 드로잉전, 와타리 갤러리, 도쿄
- 1986 백남준전, 후쿠이 극장 FBC, 후쿠이, 일본
- 1984 25백만 사람들을 위한 아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 쿤스트-세틀리트, 다다 갤러리, 베를린
백남준 비디오전, 도쿄도미술관, 도쿄
백남준: BSO, 그 너머, 보스턴 현대미술학회, 보스턴, 미국
- 1982 백남준전, 휘트니미술관, 뉴욕
백남준전,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 문화센터, 파리
- 1981 바이스, 케이지, 커닝햄, 백남준, 와타리 갤러리, 도쿄
백남준 전, 휘트니미술관, 뉴욕
- 1980 미국 새로운 영화제작자 시리즈, 휘트니미술관, 뉴욕
종이 TV와 열대 물고기, 와타리갤러리, 도쿄
- 1978 백남준 회고전,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 존 케이지 헌정 전, 와타리갤러리, 도쿄
- 1977 프로젝트: 백남준,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 1976 1946-1976 음악 - 플럭서스 - 비디오 작품, 쾰른 미술협회, 쾰른, 독일
- 1975 물고기 하늘을 날다, 마샤 잭슨 갤러리, 뉴욕
- 1974 1959-1973비디오와 비디올로지, 에버슨미술관, 뉴욕
- 1968 백남준 전,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미술관, 뉴욕
일렉트로닉 아트 II, 보니노갤러리, 뉴욕
일렉트로닉 아트 III: 백-아베 비디오, 보니노갤러리, 인터미디어 협력, 뉴욕
- 1967 확장하는 예술개념, 고드윈-턴마크 미술관, 퀸즈대학, 뉴욕
- 1965 백남준: 사이버네틱 아트와 음악, 뉴스쿨, 뉴욕
백남준: 일렉트로닉 아트, 보니노갤러리, 뉴욕
- 1963 음악의 전시-전자 TV, 파르나갤러리, 부퍼탈, 독일
예술의 통찰력을 확대하다, 폴클래퍼 도서관 아트센터, 뉴욕

그림전

- 2014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삼상당대미술관, 항저우, 중국
굿모닝 미스터 오웰 2014,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백남준과의 하루, 경기도 미술관, 안산
말에서 크리스토포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3 러닝 머신,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부드러운 교란 - 백남준을 말하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2 노스텔지아는 피드백의 제공,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글로벌 그루브, 일라이와 에디스 브로드 미술관, 이스트랜싱, 미국
X-Sound: 존케이지와 백남준 이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1 비디오, 미술, 역사, 1965-2010,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세계의 측정, 헤테로토피아와 미술안에서의 지식공간,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오스트리아
비디오와 포스트, 주드 알쿠트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파리
TV 코뮌,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미디어스케이프, 백남준의 걸음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0 과거-현재, 풍피두센터 뉴미디어 컬렉션, 텔레포니카 재단, 마드리드
아트광주 2010,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트릭스터가 세상을 만든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움직이는 이미지, 아티스트 & 필름, 루드비히 박물관, 쾰른, 독일
5월의 꽃,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주
랜덤 액세스,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09 바이털 시그널, 1960-70년대 일본과 미국의 비디오아트, 오픈 텔레비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오픈 텔레비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예술은 위대하다!, 함부르크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레코드 어게인!,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신화의 전시 - 전자 테크놀로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매크로, 로마에서의 여름, 로마 국립 현대미술관, 로마
팝-업!,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헤셀 미술관, 뉴욕

- 참여의 미, 1950부터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백남준페스티벌 나우 점프,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08 플럭서스 스코어와 지시들, 전환포인트, 샬러드를 만들다, 덴마크 현대미술관, 로스킬레, 덴마크
굿모닝 미스터 백남준, 주 영국 한국문화원, 런던
- 2007 풍피두센터 뉴미디어 1965-2003, 쉬아두 국립 현대미술관, 리스본
플럭서스, 매듭이 많은 역사, 독일 1962-1994, 안달루시아 현대 미술센터, 세비야, 스페인
풍피두센터, 비디오아트 1965-2005, ACMI, 멜버른, 호주
제1세대, 미술과 움직이는 이미지, 1963-1986, MNCARS, 마드리드
뉴미디어 콜렉션, 1965-2005, 시드니 현대 미술관, 시드니, 호주
- 2006 80년대 비디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비디오, 미술, 역사, 1965-2005, 풍피두센터 뉴미디어 콜렉션, 마이애미 아트 센트럴, 마이애미, 미국
뉴미디어 콜렉션, 1965-2005, 풍피두센터, 타이베이시립미술관, 타이베이
아무것도, 쉬른 쿤스트할레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독일의60년대 비디오아트, 브레멘 쿤스트할레, 브레멘, 독일
확대된 눈, 취리히미술관, 취리히, 스위스
포토-트래픽, 성 제르베 현대 이미지 센터, 제네바, 스위스
상점, 피에르 후버 비디오아트 콜렉션, 국립 현대 중앙 미술관, 그르노블, 프랑스
사랑의 여름, 빈 쿤스트할레, 빈
나의 바다를 삼키다,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덴마크
도쿄-베를린, 베를린-도쿄, 모리미술관, 도쿄
제35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네덜란드
- 2005 여자, 모더니즘의 변형, 호안 미로 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모더니즘과의 만남, 현대미술관,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프레드릭 크리스천 플릭 콜렉션, 함부르크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오키오 엘렉트로니코에서부터, 리볼리 성, 리볼리, 이탈리아
50주년 도큐멘타, 1955-2005, 쿤스트할레 프리데치아눔, 카셀, 독일
믹스 더블, 카네기 미술관, 피츠버그, 미국
값없는 링, 프란츠 게르취 미술관, 부르크도르프, 스위스
초기의 비디오그래피, 국립현대미술관, 아테네
205 신소장품전, K21 쿤스트 잠블룽, 뒤셀도르프, 독일
나는 작품을 만들고있다, 퀴즈랜드 아트 갤러리, 브리즈번, 호주
독일 미술 지역, 국립현대미술관, 부쿠레슈티, 호주
극장미술, 빌라마닌 현대미술센터, 코드روی포, 이탈리아
세계적 유산, 카네기 미술관 셀렉션, 컬럼버스 미술관, 컬럼버스, 미국
미에 관한 이야기,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
궁금증의 벽, NIMK, 암스테르담
현대, 후안 마르치 재단, 마드리드
1965-2005 타임비디오 - 노부 미디어 콜렉션, 풍피두 센터, 라카이사 현대미술 재단, 바르셀로나, 스페인
슈퍼스타들, 비엔나 쿤스트할레, 빈
- 2004 빛과 소리, 20세기 소리의 역사, 국립 조르주 풍피두 예술 문화 센터, 파리
독일에서의 비디오 조각품들, 1963년부터, 국립 박물관, 방콕
하이퍼미디어, 오렌지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아버지가 되는, 아기가 되는, 브롱크스 미술관, 뉴욕

- 비디오 중, 복구된 비디오컬렉션,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이미지 전과 후, 로마 국립 현대미술관, 로마
Agnès b.,- 프락미디피레네 컬렉션, 툴루즈, 프랑스
비디오아트, 소유의 여행, 레잔티 파운데이션, 록카, 이탈리아
미술& 인생, 하라 현대미술관, 도쿄
보물섬, 볼프스부르크 미술관의 10년 컬렉션,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나는 미술을 사랑한다 7,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 2003 비디오 장면들, 싱글채널 작품 - 파멜라와 리차드 크람리히컬렉션& 뉴 아트 트러스트로부터, 뉴욕 현대미술관 PS1, 뉴욕
누가 현대미술을 두려워하는가?, 이스라엘 박물관, 예루살렘,
X-Screen, 1960-1970필름 설치와 액션, 빈 국립 현대미술관, 빈
최근 인수 작품들, 몬트리올 현대미술관, 몬트리올, 캐나다
특별할 것 없는, 예술과 창의적 기술을 위한 테크놀로지 재단, 리버풀, 영국
- 2002 레제흐브에서 동물들이 나온다, 국립 조르주 폼피두 예술 문화 센터, 파리
플릭서스와 비디오 조각, 빌헬름 램브루크 미술관, 뒤스부르크, 독일
나의 예술적 고향: 라인란트, NRW - 뒤셀도르프 포럼, 뒤셀도르프, 독일
- 1999 기하학적인 모양: 현대 미술의 구조, 엘버스와 파이크, 다임러-크라이슬러컬렉션, 신국립미술관, 베를린
독일의 XX 세기 미술,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미국의 세기: 미술과 문화 1900-2000 (파트 2), 휘트니미술관, 뉴욕
- 1998 행동을 벗어나: 퍼포먼스와 물건 사이, 1949-1979, MOCA 게펜 컨템포러리, 로스앤젤레스
- 1997 조각상, 윈스터에서의 프로젝트 1997, 윈스터, 독일
- 1996 혼합된 픽셀: 백남준과 학생들, 비디오 꿈 1978-1995,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미디어풍경, 구겐하임미술관소호, 뉴욕
사운드 아트, 베를린 예술원, 베를린
- 1995 매듭 많은 역사: 독일에서의 플릭서스 1962-1994, 오랑주리 미술관, 파리
제1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인포아트 95,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제4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스탄불 예술문화 재단, 이스탄불, 터키
제3회 리옹 비엔날레: 설치미술, 시네마, 비디오, 컴퓨터, 리옹 현대미술관, 리옹, 프랑스
- 1994 흙 비디오의 재정의: 미디어, 조각, 가정, 현대미술 센터, 마이애미, 미국
1945년 이후의 일본미술: 하늘을 향해 소리지르다,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일본
하워드 와이스 갤러리: 창의적인 재료로서의 TV, 1969, 휘트니미술관, 뉴욕
- 1993 플릭서스의 정신으로,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조지 바셀리츠, 엔조 쿠치, 울프강 라이브, 백남준, 진 피에르 레이나드, 보르도 현대미술관, 보르도, 프랑스
- 1991 나는 미술을 사랑한다, 와타리 현대미술관, 도쿄
- 1990 제8회 시드니 비엔날레: 레디메이드 부메랑, 20세기 미술의 특정 관계들, 시드니, 호주
- 1989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이미지 세계: 미술과 미디어 문화, 휘트니미술관, 뉴욕
- 1988 온 트랙: 테크놀로지 안의 미술 전시, 노바 빌딩, 앨버타, 캐나다
비디오 아트: 확장하는형태, 휘트니미술관, 뉴욕
호주 비엔날레 1988: 남십자성, 세계 미술에 대한 관점 1940-1988,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시드니, 호주
미술의 현재 위치, 신국립미술관, 베를린

- 1987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시간, 유행, 열정: 예술의 외형, 1977-1987, 국립 조르주 폼피두 예술 문화 센터, 파리
도큐멘타 8, 카셀, 독일
텔레비전을 위한 예술, 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 1985 비디오 조각, ARCA 현대 미술 센터, 마르세유, 프랑스
- 1984 제41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 현재 이벤트, 그리고 역사, 영국문화원, 런던
비디오: 회고, 롱비치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내용: 현시대의 포커스, 허시혼박물관과 조각공원, 워싱턴 DC
- 1983 미국 비디오: 스무개의 새로운 작품들, 효고현립미술관, 효고, 일본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 1982 태도/컨셉/이미지,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비스바덴 플릭서스1962-82, 플릭서스의 짧은 역사 1,2,3부, 나사우 미술관 비스바덴, 비스바덴, 독일
- 1980 눈과 귀를 위해, 베를린 예술원, 베를린
파르나스의 미팅포인트, 1949-1965, 폰 데어 호이트 미술관, 부퍼탈, 독일
나의 켈른 성당, 켈른 미술협회, 켈른, 독일;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 켈른, 독일; 루드비히 박물관, 켈른, 독일
- 1977 휘트니비엔날레, 휘트니미술관, 뉴욕
도큐멘타 6, 카셀, 독일
- 1976 뉴욕-다운타운 맨해튼: 소호, 베를린 예술원, 베를린
강: 미시시피의 이미지,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 1975 비디오 아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펜실베이니아 예술 아카데미, 필라델피아 미국
제13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비디오아트 USA, 상파울루, 브라질
청각을 위한 시각: 물건들, 콘서트와 시각적 음악,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눈부신 현실, 라이트주립대학교 미술관, 데이턴, 미국
- 1974 현재의 미술 74: 미국 미술 기념 전시회, 케네디 예술센터, 워싱턴 DC
비디오 테이프, 켈른 미술협회, 켈른, 독일
미술은 미술이다, 70년대 이후의 국제 미술을 향한 관점, 프로젝트 74, 켈른 쿤스트할레, 켈른, 독일
제5회 국제 필름 실험 대회, 크노케 헤이스트 카지노, 크노케 헤이스트, 벨기에
- 1973 크림-유럽 아방 가르드 1950-1970, 튀빙겐 미술관, 튀빙겐, 독일
회로: 비디오 초청, 에버슨 미술관, 시러큐스, 미국
- 1972 시네프로브: 주드 알쿠트와 백남준과 함께한 저녁,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 1971 뽕소니 상영 (주드 알쿠트와 콜라보), 리졸리 시사회실, 뉴욕
- 1970 해프닝과 플릭서스, 켈른 미술협회, 켈른, 독일
시각과 텔레비전, 브랜다이스대학교 로즈미술관, 월섬, 미국
- 1968 아트 에디션: 새로운 도전, 뉴욕대학교 로에브 학생 센터, 뉴욕
한콜렉션: 현대미술,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 켈른, 독일
인공두뇌학의 뜻밖의 즐거움: 컴퓨터와 미술, 현대미술학회, 런던
기계: 기술시대의 끝에서,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 1967 아티스트로서 영상메이커, 유대인 박물관, 뉴욕
빛/움직임/공간,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궤도 위의 빛,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 뉴욕
- 1966 키네틱과 프로그램된 미술,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미술관, 프로비던스, 미국
- 1965 조율된 미술, 보스턴 현대미술관, 보스턴, 미국
- 1962 세계 도형 악보들, 미나미 갤러리, 도쿄

컬렉션

테이트모던, 런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오클랜드 미술관, 롤리, 미국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뉴욕
라틴 아메리카 근대 미술관, 워싱턴 DC
다임러-크라이슬러컬렉션, 베를린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허시혼박물관과 조각공원, 워싱턴 DC
호놀룰루미술관, 호놀룰루, 미국
콘스트할레 즈 킬, 킬, 독일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일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 파리
비스바덴 헤센 주립 박물관, 비스바덴, 독일
호주 국립 박물관, 캔버라
베라르도 컬렉션박물관, 리스본
아테네 국립 현대미술관, 아테네
카보우르 궁전, 토리노, 이탈리아
벨기에 왕립미술관, 브뤼셀
시립미술관, 암스테르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박물관, 슐레스비히, 독일
스마트 아트 박물관, 시카고대학교, 시카고, 미국
스미스 칼리지 박물관, 보스턴, 미국
헤셀 미술관, 바드칼리지, 애넌데일-온-허드슨, 미국
스미스소니언 미술관, 워싱턴 DC
스튜어트 컬렉션, 샌디에이고, 미국
데이턴 미술관, 데이턴, 미국
워커 아트 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수상

2001 빌헬름 렘브루크 상, 뒤스부르크, 독일
현대조각 부문 공로상, 국제 조각 센터, 해밀턴, 미국
2000 내셔널 아트 클럽, 뉴욕
금관문화훈장, 한국
1998 피테메달, 바이마르, 독일
교토상 예술 철학 부문, 교토, 일본
1995 일본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후쿠오카, 일본
호암상 예술 부문, 서울
1993 제45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베니스, 이탈리아
피카소 메달, 유네스코
1991 고슬라 카이저링 상, 고슬라, 독일
스코히간 메달 비디오 설치 부문, 미국
1981 빌 그로만 상, 베를린